

우리의 일이라는 것

— 그 다음

金仁喆

주·엄 & 이건축연구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나서 헤어지기를 여러번 되풀이 하다 보면 각각의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들 임에도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공통요소가 있는듯 하다. 그것이 나만의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이의 경우에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동료들도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 하곤 한다.

소규모 주택이든 대단위 건물군이든 규모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한 첫 브리핑을 대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또는 그 건축주와의 첫 만남, 또는 그 프로젝트의 대지를 처음 보게된 경우 등등에서 주어지는 첫 인상이 결국은 그 일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결정짓게 되는 것 같다.

첫만남의 상황이 원만히 이루어 졌던 일들은 그 과정과 해결이 순조롭고 그렇지 아니했던 경우의 결과는 역시 그렇지 않은 해결이 되곤 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느낌이다. 또한 그 일에 대한 나의 동기나 목적이 순수했던 경우와 어거지를 부렸거나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에 추가시켰던 경우는 그 시작과 같은 결과를 항상 만들고 마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이끌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의 요구와 기능과 대지의 조건과 그곳의 환경과 여건 등등 교과서적인 분석을 거치면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고 그것이 연필의 흐린 선으로 계속 겹쳐지다가 그 윤곽의 짙은 부분이 뚜렷해지면 그때부터 그 선과, 그 선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덩어리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이미지 스케치라고 하는 이 과정이 아마 건축쟁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감각과 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한 이 과정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건축이 순수예술에 속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

바로 이 순간에 부어 넣었던 정열이 나중에 일어나는 창작외적인 여러가지의 제약이라던가 현장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끈기의 바탕을 이룬다.

그 정열의 강도에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음의 의도를 밀고 나가 완성시키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해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되거나를 결정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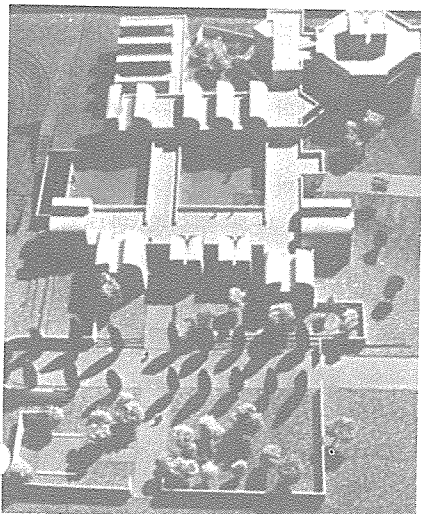
자신의 순수한 표현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예술과는 달리 건축이라는 행위는 작가 자신의 내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외부조건과도 힘들여 부딪혀야 한다.

그러한 외부조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몰이해일 수도 있고, 법규적인 내지는 행정적인 제약일 수도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공 기술상의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신념과 그를 바탕으로 한 고집이 없이는 그 완성까지의 과정에서 맞닥뜨려지는 그때그때 마다 휘어지거나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워진 작품을 내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기마저 포기하게 된다.

완성을 하기까지의 고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열과 신념의 강도와 농도는 얼마큼이나 많은 스케치를 그 일에 소모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것을 위해 관련시켰으며 그것에 매달린 시간의 누적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현대사회가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대량 생산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 가능한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창작행위마저 기계로 찍어 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부지런을 피우면서 이 일 제일 가리지 않고 일을 배우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말의 스케치를 잡는 것이었다. 취미를 갖거나 사회활동과 같은 고상한 것은 못하더라도 데이트를 하기 위한 여유는 있어야 기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터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연구소의 가장 바쁜 시기는 주말·월말·연말 등의 일반적으로는 가장 한가해야 하는 때가 된다. 그 이유를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쪽의 원인보다는 우리에게 부탁한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을 것 같다.

우선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상되는 것이 월요일, 실무적인 검토가 수요일쯤 끝나서 설계자를 수소문해서 찾아오거나 부르는 것이 금요일경에 이루어지고 계약적인 설명을 한 뒤 월요일에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가 되니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뿐인 결과가 된다. 주말의 연구소에서 지하실 커피숍에 신경을 쓰던 일은 세월이 해결해 주었으므로 이젠 집에서 편안히 데이트를 치루면 되게 되었지만 이제는 총각 스태프들에게 작업 메모를 주말에 전하기란 꽤나 곁연쩍은 일이라 망설여지곤 한다.

이러하듯이 기획과 작가선정에 소비된 시간을 뭉뚱그려 우리 작업에 포함시키므로 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어찌어찌해서 당장의 불끄기 목적은 해결하지만 충분한 생각과 스케치를 거치지 않은 결과는 도중에 뒤집히거나 뒤틀려서 앞뒤가 뒤바뀌는 처지에 곧잘 이르게 되곤 한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충분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재미있는 사실은 최초의 발상이 스케치되어 그것을 계속 다듬어 나가다 보면 당초 계획의 모순점이라던가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다시 그려지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진다. 그러는 중간과정에서 정리되어진 계획은 최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있음을 보게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원안에서 한 것과 같이 반복과정을 치루게 되면 결국은 최초의 스케치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물론 원안의 그것이 상당히 수정되고 정리된 것이 되지만 개념이라던가 형태의 주요소 등등의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여러번 갖게 되었다. 주위의 동료들도 비슷한 경우를 자주 갖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최초로 그런 것을 그대로 결과치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지만 그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확신과 신념은 도대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연구소에서 처음 주택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경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수십권의 잡지를 뒤지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가의 작품을 훑내 내어도 보고 하며 나름대로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만들어 선생님에게 보여 드렸더니 마땅찮은 표정을 하시면서 내손의 연필을 넘겨받아 들쭉날쭉한 평면과 입면 위에 당신의 취향인 부등변 삼각형의 박공지붕을 씌우시며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보게”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려보아도 박공지붕보다는 처음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있는데 며칠 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당신의 오랜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택의 이상적인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나의 태도가 꽤 못마땅 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 주택은 다른 스태프의 손에 넘어가 완성이 되었지만 선생님의 의견에 그대로 따르기에는 미진한 무엇이 있었던 것 같다. 좀 더 만졌더라면 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과 쓸데없는 고집만 부린게 아닌가 하는 후회를 어쩔 수 없었으나, 자신의 내부에서 걸려져 나오는 결과가 아닌, 되어진 결과를 따른다는 것은 어찌면 자신에 대한 포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건축에 입문하는 문턱에서 겪었던 이런 경험은 그 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선배와 동료들의 의견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시키는대로 따르면서 취사선택하여 내것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기 고집만의 작은 스케일을 외부에 개방시켜 더 큰 스케일로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수정하고 다시 그리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 하나의 확신을 만드는 과정은 동료들이 흔히 이야기 하는 “도를 닦는”, 고되나 즐거운 작업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외부세계에 노출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되어진 결과를 외부에 갖고 나가 펼쳐 놓았을 때의 기분은 걸친 것을 모두 벗어버린 뒤의 수줍음이던가, 한편으로는 자기과시를 위한 스트리킹

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곤 한다. 어찌됐던지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그쪽의 의도와는 달리 사소한 것이 크게, 대단한 것이 작게 되는 식의 민감한 자극이 되곤 한다.

쟁이들끼리 흔히 입에 올리는 우스개소리는 대가가 건축주라던가 그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모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정신병자로 취급되기도 하며 심하면 어딘가 망가진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이야기를 만들게 된 장본인이 상대방에게서 당한 정도에 따라 망가진 정도가 결정되는 것 같아 재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고 있는 상대방이 실제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니, 아마도 당했다는 것은 당했다고 느끼는 쪽의 일방적인 생각일 것이다. 어느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우리를 비분강개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를 웃게도 하지만, 그런 만큼이나 자기의 분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지는 대단한 것이다.

얼마 전에 도자기를 하시는 분을 소개받을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무심코 제대로 된 것은 비쌀터이고 하니 가마에서 변형되어 버린 못쓸 것들을 깨어버리지 말고 우리처럼 가난한 동호인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가 뜻하지 않게도 상대방이 흥분하는 바람에 평장히 무안했던 일이었다. 그분의 흥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은 자신의 분신, 다시 말해서 자식인데 병신 자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깨어버리는 마음도 편하지는 않지만 그 못난 것이 다른 주인을 만나서 재떨이나 휴지통이 되어 구박과 천대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 절대로 내어 놓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열심히 그려 청사진을 굵고 풀칠을 해서 책을 만들어 남에게 넘길 때 잘은 모르지만 딸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 하고 중얼거리

던 선배의 느낌과 상통하는 이야기였다.

나를 표현한 이 청사진 문치가 과연 세상에 나가 제대로 구실을 할지 아니면 서류창고에 처 박히거나, 거처된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덩굴리거나 앉을지 하는 걱정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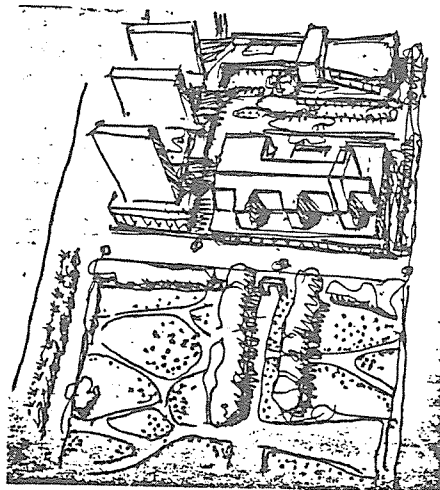
이 글을 쓰는 조금 전에 모 통신사의 사옥을 위한 현상설계작업을 끝내어 되어진 스물여남은장의 판넬을 들고 우리 스태프들이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출발한 뒤이다. 시간여가 지나도록 아직 보고가 없지만, 제대로 시간 내에 도착되었는지부터 앞으로의 경과 등등이 무척이나 궁금하니 선보러 나간 딸을 기다리는 마음 아닐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을 것이다. 그것이 이기주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나은 것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탓할 수 없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분야에서는 그렇게 잘되지 않는다. 건축이라는 것의 특징이 일반적인 예술과는 주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소장가는 그것이 자신의 소유이지만 그 그림자체의 주인은 그것을 만든 작가라고 인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에 하나도 피해가 없고 오히려 그 소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도 화랑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추어 호감이 가는 것을 골라,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된다. 그러나 건축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문제이다. 우선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건축을 창작물로 대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르지 않았고 설령 인정을 하게 되었다더라도 어떤 하나의 개인을 자신의 대단한 재산의 공동주인으로 삼기를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도 무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설계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도와준 일은 거기에 투

자된 금액과 거기에 동원된 노력에 비할 때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밖에는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설계자의 제도판에서 거치는 시간은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 지는 엄청난 시간과도 비교가 되지를 않고, 현장을 뛰어 다니는 감리자도 주인의 눈에는 인부들의 헬멧에 가려져 띄이지도 않는다. 이렇듯이 직접 만져지고 보여지는 일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애타게 하는 것은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자신이 하려했던 대로 이루어 지느냐 망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어 놓았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건축주의 반응이다. 긍정적인 호감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안심이지만 부정적인 국면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 또한 그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상대방의 몰이해이거나 견해의 차이에서 오게되는 경우의 답답함이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도면과 그림을 가지고는 이미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말이라는 수단으로 상대에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건축가의 능력은 손이 아니라 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어느 선배의 독백이 이처럼 실감되어 질 때는 없다. 사실 설계도면을 완전히 이해하여 평면적인 도면을 토대로 그것이 이루는 공간을 상상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숙달이 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에 휘갈겨 쓰여진 병명이나 약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환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개로 박아넣은 박사호의 권위와 의사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대단한 실례이고 무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야 함은 물론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재차 확인하여야 나중의 곤욕을 면할 수 있다. 드로잉 디스커스에서는 충분히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했던 상대가 현장에서 그게 아니었다고 고개를 내젓게 되면 일은 꼬이게 되고 우리는 고달파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 중에 건축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다. 간략하게 브리핑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오죽하면 그 기법에 대한 책이 만들어질 정도이지만 도대체 그것에 들여야 되는 노력은 무엇을 노리고 행해지는 것일까? 물론 대강 알아보기 쉽게 그려서 여러번의 설득을 거치는 것 보다는 정성과 시간을 쏟아 단번에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 우리의 직업윤리는 어찌면 화류계의 그것과 상통할 수도 있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곤하다.

이즈음의 대개의 건축주는 우리의 노력덕분에 어지간한 프레젠테이션에는 끄덕조차 않는다. 오히려 좀더 그럴듯하게 만들지 못하고 어찌 그 정도냐는 핀잔을 받게되는 지경이다. 실상 집이 지어지는 일에는 그러한 효과와 치장은 아무런 관계도 역할도 없다. 결국 우리가 애써 그린 도면은 현장기사의 손에 들려져서 기능인들에 올바로 전달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치수와 재료와 그 접합의 디테일이지 하늘의 색깔과 유리창에 반사되는 배경

의 처리는 아닌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렌더링으로 표현된 건물도 그에 따르는 내용의 충실이 없으면 그것은 페이퍼 작업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현상설계의 판넬링을 열심히 만들다 보면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심사를 받을 분들도 생각치 않을 수 없으므로 좀더 강조하고 좀더 모양내기 위해서 공을 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작품성 위주가 아니라 전시효과를 겨냥하게 되니 문제가 된다.

먹물보다는 스크린톤을, 렌더링보다는 실크스크린을 하는 식의 발전이 되다보면 건축연구소인지 인쇄공장인지를 구분하기조차 힘들고 시커먼 잉크를 얼굴에, 손에, 옷에 묻히고 잠 못잔 충혈된 눈을 껌뻍거리는 소원들이 어쩐지 안스럽게 느껴지곤 한다. 차라리 그런 정성으로 꾸미고 나서면 미인 콘테스트의 입상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곳에 쓰이는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기법들도 발달되어 손쉽게 기계적인 작업이 가능한 부분들도 많아 졌지만, 우리들 끼리라도 단합해서 필요 외의 효과를 치장하지 않기로 하는 쉼기대회라도 한번 열어보고 싶은 심정은 어쩔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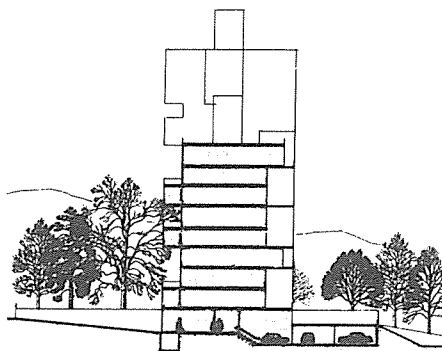
작품을 만들어 그것을 내어 놓기까지의 과정에 할애되는 이러한 치장의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끝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마감직전에는 초읽기의 지경에 빠지게 되고 모두들 하루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이 마지막 하루는 그 현상설계 기간이 충분하거나 부족하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게 되므로 어떤 경우 건축주의 실무자들이 현상설계기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는 협의를 받게 될 때 작업에 필요한 절대기간은 어떤 근거로든 만들어 지지만 그 나머지 작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결국 근거있는 기간 안에 근거없는 기간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곤 하니까 연구소의 창고에는 항상 스리펍이나 퀴퀴한 카시미론 이불

이 항상 치워지지 못한채 있다.

그러나 현상설계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고 밤을 새우며 나누는 동료들과의 대화가 있는 낭만도 있다. 이미 작품에 빠져들게 되면 결과의 당락은 훗날의 일로 돌려놓고 자기도취의 무아지경 속에서 해매이게 되므로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긍지는 남게된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쉬지 않고 연속되는 밤일 때에도 그 피곤을 서로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일 터이다.

이러한 현상설계라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어떤 연고에 의해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운 좋게도 쉽게 일을 맡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건축주는 대개가 우리 연구소의 분위기



등을 이미 외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는 전혀 상식이 없이 우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맺어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은 건축주 측에서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둘 이상의 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안을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무언가 미흡하다는 설명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안의 보조자료로 다른 안을 비교시키는 약간은 치졸한 방법론도 있긴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동시에 두가지로 표현하라는 것은 연구소를 둘로 나누라는 이야기와 다를게 없다.

“절대적인 최선은 없다”라는 카네기의 어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동시에 두가지의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되어 버리고 만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는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니 안하느니만 못하다. 괜한 것에 쓸데없이 노력을 더하느니 제대로의 것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동일한 작가에게서 A와 B의 두가지 경우를 동시에 보겠다는 것은 남대문시장의 좌판을 연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언젠가 우리 연구소를 찾아오신 분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뒤 참고하여 달라고 하며 내놓는 앨범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강남지역에 조그만 빌딩을 지을려는 그 분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던 모양이다. 비슷한 규모나 취향에 맞는 건물들을 미리 답사해서 평면은 A, 입면은 B, 현관은 C 하는 식의 하나씩 골라 놓은 사진첩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축작업은 작업이므로 일상적인 일일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생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맡길터이니 알아서 해달라는 여유보다는 시시콜콜 챙기는 건축주의 입장이 충분히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참고로 하여 달라는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므로 바람직하지만, 자신이 골라놓은 A, B, C를 기술적으로만 연결시켜 달라는 주문인 경우는 참으로 막막하다. 어찌 할바를 몰라서 묵묵히 있노라면 한결음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론까지 알으켜 주려 한다. 해보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잘되지 않더라고 하며 그래서 설계사를(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대한 대체적인 호칭은 건축가도 건축사도 아닌 설계사이다.) 찾아 오게 되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인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그쪽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설계비의 서너배쯤으로 그쪽을 놀라게 하는 것 밖에 없다. 귀찮게 찾아오는 아주머니에게 그만 오시라고 설계비를 높히니까 비쌀수록 좋다며 매달리더라는 어느 친구의 경험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쓸데 없는 고생을 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조차 먹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취재를 왔던 어느 잡지의 기자의 이야기, “이 계통의 여러분을 만나 보았는데 한결같이 착해 보이더군요”. 나이 아래인 사람이윗사람에게 대해 착하다고 느낀 것은 아마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결로 생각된다.

주위의 동료들을 둘러 보아도 역시 그런 것 같다. 순수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된 것인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해진 것인지 판별은 잘 안되지만, 한가지 틀림없는 것은 순수치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우리의 경우는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린 것은 그 다음날, 아니면 일년 후이던 십년 후이던 사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거짓으로 그린 선은 언젠가는 거짓임이 판명되고 당장을 면하기 위한 임기응변도 뒤따라 후속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큰일나게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연구소에 오래 함께한 동료들을 보면 대개가 말수가 적고 엉덩이가 무거운, 그래서 쉽게 들먹거리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 경쾌, 활달한 성격은 제도판에 눌러 앉는 정적인 작업에는 잘 어울려지지 않는 모양이다.

직업과 적성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새로이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들 소개받아 보면 외향적인 인상을 주는 친구들은 대개가 잠깐의 기간만 같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우리의 일이 혼자만으로 되는 작업이 아닌 여럿이 어울려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성격이라든가 생활양식의 조화가 꽤나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므로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나누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뽄뽄 뭉쳐지다 보면 남이 보기에는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파워로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작업은 해치워질 수가 없다. 같은 연구소내의 동료들끼리 서로 담을 트고, 연구소들끼리 서로 담을 트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계속 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일은 한없이 즐겁고 수월한 최상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둑을 막기 위해 높다랗게 만든 담이 오히려 도둑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아이러니는 담을 치면 안전하다는 생각과 담만 넘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 담 보다는 얇은 담을, 전자경보장치 보다는 쥐똥나무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설계 및 시공·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금요일 / 오후 1시 - 오후 3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별관 723-6258 · 8059

이웃마다 믿는마음 거리마다 밝은마음